9천년 세계 건축史의 나침반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건축의 역사'

조너선 글랜시 지음 / 강주헌 옮김

시공사 / 2만 9천원

주요 건축물·양식·건축가 시대·지역별 구분 정리

"건축은 문명의 역사를 포괄하는 주제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조너선 글랜시는 이렇게 단언한다.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의 명예회원이자 '더 가디언(The Guardian)' 지의 건축과 디자인 부분 편집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가 9,000년 건축의 역사를 유려한 문체로 풀어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건축의 역사〉는 제목 그대로 400여 컷의 화려한 화보로 보는 건축의 역사이자, 한편의 건축 '오디세이아'이다. 주요 건축물과 건축양식, 그리고 건축가를 각 시대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그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이 명쾌하고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인도의 건축물에 대해 한번 들어보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들의 사원"인 보로부두르의 스투파(자바 섬, 8~9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찰이다. 이 사찰은 최고 수준의 건축, 조각, 그리고 조경 설계의 결합물이다. 전체적인 구성은 활화산과 우림이 어우러진 장관을 배경으로 세워진 성스러운 산의 모습으로, 깨달음의 아홉단계를 지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영혼의 여행을 돕이라는 소재로 표현해 낸 것이기도 하다. 깨달음의 아홉 단계는 석재 단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맨 아래의 다섯 단은 직사각형 모양의 닫힌 회랑 형태이다. 다음 세 단은 명상에 잠긴 불상을 감싸고 있는 72개의 종 모양 스투파로 에워싸인 열린 환형으로 지어졌다. 마지막 단은 눈과 영혼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는 중앙의 스투파로, 그 안쪽에는 회랑 안에 모두 1,200개에 이르는 조각된 판들이 부처의 생애와 전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일렌드라 왕조(775~864년)가 통치하던 시절에 건설되었으며 850년경 최초의 설계에 따라 완공되었다. 그후 아래쪽 행렬용 단에 추가 공사가 한번 있었다."

◇아난다 사원(미얀마의 파간, 12세기)은 스투파 사원들의 특징을 결합한 건물로, 탑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조너선 글랜시는 이 책에서 건축가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시각으로 최초의 건축물인 신전의 장려함에서부터 마하발리푸람에 있는 사원들의 우아함, 중세 고딕풍 성당의 야심 찬 모습, 그리고 하늘 높이 치솟은 20세기의 마천루(고층빌딩)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능동적인 변신을 거듭해 온 예술로서의 건축을 펼쳐 보인다.

조너선 글랜시는 "건축은 영원과의 교감이며, 우주와의 화합이며, 인간의 야심을 3차원의 공간에 그려내는 매혹적이고 감각적인 작업"이라면서, 불을 쫓는 나방처럼 자신이 추구해 온 건축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한다.

더불어 이 책에는 팔라디오, 르 코르뷔지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등 건축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혁신적인 건축가들에게도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의 삶과 작품에 대해 간략하지만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있다. 책의 뒷부분에는 용어설명을 실어 기본적인 건축용어에 대해 쉬운 설명을 곁들여 놓아, 건축에 대한 식견을 갖춘 애호가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의 지적 호기심도 충족시키기에 충분히 역량 있고, 재미있는 책이다.

이은자 기자 eae@buddhapia.com

미래 과학·인간에 대한 지형도

전문가 서평

'앞으로 50년'

존 브록만 엮음 / 이한음 옮김

생각의 나무 / 1만 7천5백원

미리 보는 미래, 흥미넘어 오늘을 돌아보게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고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로마클럽에 의해 발표된 1972년만 해도 미래학의 청사진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다. 1994년 발표된 미래 예측 보고서에서도 로마클럽은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할 위기를 전망하면서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도에 머물 뿐이었다. 물, 에너지, 토양 등 주로 환경 문제에 국한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때의 미래학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경고를 보내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나니까 멈추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하라는, 일종의 적색 경보가 미래학의 기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50년〉(이한음 옮김, 생각의나무 펴냄)은 조금 다르다. 물리학, 생물학, 의학, 인공지능, 컴퓨터, 수학 등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과학자 25명이 각기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나타날 성과를 예측한 글들을 한데 모은 이 책은 무엇보다도 도전적이고 과감하다. 앞으로 50년이라면 우리 당대에 그 예측의 적중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근(近)미래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그들은 현재의 책 속에 2050년의 낯선 신세계를 펼쳐 보인다. 그곳에는 확신과 주저, 욕망과 두려움이 함께 뒤섞여 있으며 미래에 대한 눈먼 낙관주의와 수동적 무기력증은 거부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당뇨병, 알츠하이머, 대부분의 암, 불임 같은 만성 질병의 원인이 감염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따라서 이를 막을 백신이 등장한다(폴 이월드).

인간의 뇌와 정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누가 살인자나 아동학대자, 강간범이 될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갖고 인류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조지프 레덕스).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에 성별은 물론이요 신체적, 인격적, 정신적 특성까지 선택하고 뇌는 병든 부분을 통째 바꿀 수 있다. 인간은 더 이상 다윈의 진화론에 갇혀 있지 않으며 생명과 사물의 관찰자에서 그것들을 조작하는 존재로 발전한다(로드니 브룩스).

행복의 50%가 유전에 의해 결정되므로 유전공학의 발달은 인위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마하이 칙센트 미하이). 그러나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허혈성 심장환 다음으로 전세계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스트레스도 덩달아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로버트 세폴스키).

학교나 사무실이 사라진다.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이 시간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의 빛살'로 대체돼 누구나, 어디에 있건 자신만의 실시간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만날 일은 거의 없어진다(데이비드 겔런터).

이들 예언 가운데 일부는 적중하고 또 일부는 빗나갈 것이다. 인조인간(이른바 '로보 사피엔스')으로의 인위적인 진화처럼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아직 무모한 가설에 불과한 것을 확신으로 포장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첨단과학의 현주소와 그것의 미래에 대해 인문학적 관심을 품은 일반 독자로서야 그 시시콜콜한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는 없겠지만, 미래를 만드는 현재의 과학이 이제 단순히 과학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뉴튼이나 아인슈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인식론의 급격한 전환을 요구한다. 엮은이는 "최근까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발맞추어 빠르게 우리의 전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문화가 없었다"라며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출발점에서 미래를 바라볼 것을 권유한다. 양적 과학의 그늘에 가려 잊혀졌던 질적 과학으로의 관점 이동을 제안하는 브라이언 굿윈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그런 엮은이의 의도에 가장 잘 부합한다.

"(양적 과학이 질적 과학으로 변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상 암흑시대이기는 하지만, 변화의 씨앗이 이미 지구의 그늘 속에 놓여 있는 시대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가이아(대지의 여신)가 그 씨앗을 키우고 있는 시대로 보일 것이다."

미래의 객관적 현실을 미리 개괄해보는 동시에 그 가치론적 의미까지 따져보고 싶은 독자라면 충분히 흥미로운 읽을거리지만 군데군데 번역이 거칠거나 쉬 알아들기 힘든 전문적 대목이 불거져 나오곤 해 마냥 재미있게 읽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치 조각보를 만들 듯, 이 책에 실린 편편의 에세이를 하나하나 꿰맞추다보면 과학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총체적 지형도를 그릴 수 있게 된다. 그 조각보의 미추를 판단하는 일은 전적으로 독자의 취향에 달려 있다. 예언의 실현은 사람에 따라 즐거울 수도 섬뜩할 수도 있다.

※강철주/ 시사저널 편집위원

〈앞으로 50년〉은 인문교양과학서다. 최신 버전의 과학 트렌드를 살피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론물리학자 리 스몰린, 영국 슈미허 대학 생물학 교수인 브라이언 굿윈, 인지신경학자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신경학과정 교수인 마크 하우저 등 26인 과학자의 미래 예측 보고서를 선도적인 과학자와 사상가들을 위한 웹사이트(www.edge.org)포럼 〈에지〉의 편집장 겸 발행인인 존 브록만이 엮었다.

만화로 보는 세계종교이야기

'신의 나라, 인간 나라'

이원복 글·그림

두산동아 / 1만원

'인류에게 종교는 무엇인가' 쉽게 설명

〈신의 나라 인간 나라〉는 〈먼 나라 이웃나라〉 〈만화로 보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 만화의 형식을 통해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사해 온 덕성여대 산업미술학과 이원복 교수가 들려주는 아주 명쾌한 세계 종교이야기다.

'세계정신문화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인 이 책은 이 교수의 재치있는 그림과 이야기를 비주얼한 시대감각에 맞게 윤컬러로 제작했다.

이 책은 종교를 통해 세계 문화의 다양한 장체를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어 종교가 왜 탄생하였고, 인류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신화와 전설이 뒤섞인 시대인 고대의 종교에서부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등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놓은 수많은 종교들의 탄생과 변천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종교가 인류에게 어떤 희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는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각 종교들의 교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 비교하여 균형잡힌 종교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시리즈의 두 번째 권인 '신화의 세계' 편은 세계 문명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신화와 전설의 이야기를 현대 문명과 연관지어 재미있는 만화로 담을 예정이며, 마지막 제3권 '철학의 역사' 편은 세계 정신 문명의 큰 기둥인 철학의 역사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선보일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선무도 화랑 수련회

신라 화랑정신의 고장인 경주 골굴사의 선무도대학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 기 간 : 2002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 (1주, 2주, 1개월)
-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체육단체, 기업체 위탁 연수)
- ▶ 수련내용 : 인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 ▶ 참 금 : 학생(1일-2만원) 일반(1일-3만원, 1개월-65만원)
- ▶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 ▶ 수련비 입금계좌 : 농협 721107-52-0373000 (예금주) 설기준
- ▶ 준 비 물 :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장갑
- ▶ 시 설 : 선무도대학 본관과 요사숙소는 신축건물로써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석굴사원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사람 전통문화와 대자연속에서 불교의 선무도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과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특히 타문에 지친 입시생들의 심신회복에 도움이 크다.

일 과 표

4시	기상, 예불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 대중이 1일 불식)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 선(명상과 선호흡수련)	14시	오후 수련(선무도 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무용, 다도)
7시	아침공양(발우 공양)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8시	불교강의(초발심, 부모은중경)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수련 (선무도의 정적인 기공수련과 선체조)	19시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11시	108배 참회기도(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선무도)
12시	점심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의 문무대왕수중릉 성지순례와 계곡의 얼음 골속에서냉수마찰 수련도 합니다.
-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을 정화하고 한문공부도 시킵니다.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일체 허락하지 않습니다.
- 규칙을 어길 경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련회 참가자는 전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
- 지도진: 스님, 사범등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전공자 등), 다도 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대학원)
- 홈페이지 www.golgulsa.com 또는 sunmudo.com -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 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선무도 대학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武道(禪기공) 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는 건강과 수행을 위한 수련회가 년중 항상 열려 있습니다.

-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심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의 선생님들께서 추천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단,1월과8월은 일반학생 수련회관계로 받지 않습니다)
- 무예나 기공 수련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분 (홈가정자는 전액무료이며, 대학진학<불교학, 체육학> 까지 보장 됩니다.)
-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으로서 심신을 휴양하고 싶은 분 (비만형 학생인 경우 1달에 8kg까지 빠집니다)
-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학교, 체육, 예술, 사회단체, 기업체의 위탁연수 및 출장이 가능합니다
- 인근 도시의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주말 수련회(금.토.일)가 1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주관광을 겸한 선무도 체험을 원하는 수학여행단의 단시간 연수를 예약받습니다 (사찰관람 및 선무도수련, 약2시간)
- 외국인 관광문화 체험단일정이 많으므로 단체연수인 경우 꼭 예약이 필요합니다
- 본 협회 산하에 약20여개소의 국내지원, 지부와 4개국에 해외 지원이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개대학에 교양과목 및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본 협회는 현재 학교법인 「선무도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무도」는 본 협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칭(상표등록 NO 제022354호)이므로 유사단체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www.golgulsa.com / sunmudo.com

전 화 054)744-1689, 745-0246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한국민족악기의 자존심 -

한울림 국악기

국내최초의 등록상표 "한울림"으로 국악기의 브랜드시대를 개척한 한울림은 서울과 부산에 직영전시장과 전국 10여개 도시에 한울림악기 전문 대리점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국악기 전문 제조, 판매업체입니다.

• 성신현장 – 경기도 양평에 폐교된 학교를 사용하는 한울림 양평공방연구원은 그 외형적인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종합악기를 생산한다는 내용면에서도 그 최대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울림공방이 가장 자랑스럽게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품질을 지향한다는 품질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 타악기 PRERCUSSION INSTRUMENTS

고정음을 이는 악기와 고정음을이 없는 악기로 이루어진다

• 장구(JANG-GU) • 북(DRUM)
• 징(CHING) • 꽹가리(Kkwaenggwari)

◆ 현악기 STRING INSTRUMENTS

악기의 몸통에 줄을 매어 이 줄을 통해 소리가 나는 것이다

• 가야금(KAYAGUM) • 아쟁 • 거문고 • 해금
• 개량 가야금(IMPROVEMENT KAYAGUM)

◆ 관악기 WIND INSTRUMENTS

입으로 김을 불어넣어 혀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 대금/소금/단소(TAEGUM/SOGUM/TANSO)
• 개량대금/개량단소(IMPROVEMENT TAEGUM, TANSO)
• 태평소 • 피리

◆ 악 세 서 리 ACCESSORIES
◆ 소 품 STAGE PROPERTIES
◆ 유아용악기 CHILDREN'S INSTRUMENTS
◆ 음반/비디오/교재 CD-ROM/VIDEO

한울림국악기 제품문의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5-16 TEL 02)521-3277 / FAX 02)521-3276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 3동 144-2 TEL 051)501-3191 / FAX 051)501-3192
양평공방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160 TEL 031)774-1007 / FAX 031)774-1006